

마구잡이 수색... '요란' 떠는 검·경, '불안' 떠는 주민

■유병언 은신 추정 순천 피서지 청소골 가 보니

순천 지역민들의 피서지로 각광받는 청소골 계곡이 본격적 피서철에 접어들기 전부터 '아수라장'이다. 세월호 실소유주로 파악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순천 은둔 가능성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다. 순천 청소골 계곡 일부 구원파 신도들이 사는 마을은 그야말로 유씨를 검거하려는 수사 당국과 5억원의 현상금을 노린 사냥꾼들로 바글바글하고 있다.

해당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구원파와 상관없는 지역민들까지 수사 당국 및 사냥꾼들에게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도깨비'식으로 이뤄지는 마구잡이식 주택 수색으로 인권·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아지는 형편이다. 검·경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색할만

한 '합리적 의심' 수준 대상지가 정해지고 있다는 점에도 정작 유씨 검거 등 뚜렷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탓에 부실한 수사력으로 주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유병언, 순천 청소골에 있나?"=검찰은 유 전 회장이 순천을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경 수사 당국이 애초 수배했던 차량을 전주에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 은둔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이 청소골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다.

검찰은 순천~전주간 17호 국도변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통해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인 양모(56)씨가 지난 25일 새벽 3시25분 '혼자' 운전하는 장면을 확인

●왜 청소골인가 구원과 신도 일부 거주하고 운전자 양씨 모습 찍혀 대포폰 통화 발신지 추정

했다. 양씨는 2시간25분 전인 25일 새벽 1시께 순천시 서면 송치재 휴게소에서 50m 떨어진 번모(62·구속)씨 별장에서 유 전 회장을 태우고 달아난 바 있다. 즉, 송치재부터 양씨가 홀로 운전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설치 장소와의 거리가 차량으로 10분 거리임에도, 2시간25분 걸린 점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이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대포폰' 통화 내역 위치가 청소골 인근 점도 청소골 은둔을 확실시하는 이유다. 검찰은 이 같은 점에 주목, 양씨가 30분

●수사 문제점은 인천지검 단독 검거하려다 경찰 공조도 안돼 허탕 일쑤 잦은 가택수색 불안도 팽배

거리에 있는 청소골에 유 전 회장을 내려 주고 '교란 작전'을 벌이기 위해 양씨 홀로 차를 몰고 전주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 마구잡이식 수색=인천지검 등 수사 당국은 지난 31일 순천 청소골 인근 구원파 신도의 주택·차집 등 7가구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 수사 당국은 앞서 지난 23일~28일 사이에도 이 일대에서 두 차례 이상 가택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경이 유씨 검거를 위해 이 일대에서 가택 수색을 한 가구 수만 13가구가 넘는 다. 한 집당 적게는 한 차례, 많게는 세 차

레 이상 '무차별적' 수색을 받았다. 한 팀이 집안을 훑고 가면 며칠 뒤 다른 검·경팀이 찾아와 수색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이들 증언이다. 여기에 검·경 뿐 아니라 '현상금' 사냥꾼들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원파 신도는 물론 마을 주민들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골 거주 주민 A씨는 "수사관이 며칠 사이에 두차례나 들이닥쳐 안방까지 뒤졌다"면서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 B씨는 "2년 전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이후 지인의 소개로 세모그룹 계열사의 건강기능식품을 먹게 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져 계속 먹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매번 수습, 수백 만원의 기능식품 구매 결제를 카드로 하다 보니, 나를 구원파 신도로 오해하고 찾아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사력 구멍=검·경 총력전에도 뚜렷한 성과는 없는 형편이다. 2200명이 투입돼 공·폐가 1048개소, 종교시설 238개소, 주거시설 635개소 등에 대한 검문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뿐이다. 반약한 정보력에 '단독플레이시' 검거 작전 탓에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지검 등 전담팀도 지난 23일부터 지난 31일까지 순천 지역에 사는 구원파 신도 130여명 중 137구가 이상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전담팀 39명도 이들과 공조 수사를 펴고 있다. 순천경찰은 국도 17호선(구례방면)·황천 IC·청소골 입구 등 4~5곳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liee@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잠수사 사망·기상악화 실종자 수색·절단 작업 4일까지 중단하기로

민간 잠수사 사망사고에 이어 기상악화까지 겹치면서 실종자 수색 및 창문 절단 작업이 오는 4일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부사고대책본부는 1일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일부터 4일까지 기상 악화가 예상돼 현장 바지선 2척 모두 피항한 관계로 당분간 수색 작업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4일까지 사고 해역은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초속 10~14m로 불고 파고가 최고 4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4층 선미 다인실 쪽 창문 절단 작업을 하던 민간 잠수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31일 오후와 1일 새벽 수중수색을 재개했으나 실종자를 수습하지는 못했다.

대책본부는 4층 선미 절단 지점을 확인한 결과 현재 창문 세 칸 크기의 작업 면적 중 창문과 창문 사이를 잇는 창틀 2곳 90cm가량만 더 절단하면 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실 방지를 위해 이날 오전 3시50분께 자석이 부착된 그물망으로 절단 부위를 씌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대책본부는 기상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잠수사의 수중 작업 과정에서 위험성이 제기된 기존의 산소 아크 절단법이 아닌 유압 그라인더나 쇠틀을 이용한 방법으로 절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도=박현경기자 hypark@



견인차에 실려가던 차량 불

지난 30일 오후 광주 남구 진월동 부근 순환도로에서 뒷바퀴 고장으로 견인차에 실려가던 마티즈 차량이 이동 도중 불이나 차량 모두를 태우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파악중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0일 세월호 첫 재판 앞두고 광주지법 긴장·분주

응급상황 대처 교육 등 실시

변호사도 소지품 검사

법원이 10일 열리는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분주하다.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인 10일 이 선장 등 15명을 소환, 이들의 법정 출석이 처음 이뤄지는데다, 생때같은 자식을 하루 아침에 잃은 피해자 가족이 재판을 방청하면서 맞닥

뜨리게 될 분노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마련하느라 긴장감 속에 눈코 뜰새 없는 분위기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 출석이 필수적 요건이 아니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환할 수 있다.

광주지법은 2일 오후 4시30분부터 법원 6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 참석자들을 상대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교육'을 실시한다. 법원은 동부소방서 도움을 받아 세월호 재판에 참석하게 되는 참여관·실무관·법정 경위 등 40명에

게 심폐소생술 교육·실습 등을 진행한다. 재판을 지켜보다가 울분·분노 등을 억누르지 못하는 방청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주법정인 201호 법정(103석) 뿐 아니라 보조 법정(75석)에서도 재판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데다, 민감한 변론 과정에서 발생할 고성·항의 등 소란 행위에 대한 대책도 강구중이다. 2일 오전 추첨으로 결정되는 방청 희망자 20명에 대해서도 주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정 출입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법원 청사 관리를 맡은 광고법원은 지난 30일부터 재판을 방청하는 일반 방청객 뿐 아니라, 매일 드나드는 변호사, 취재기자에 대해서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고 나섰다. 아울러 재판 당일 협소한 법정에 들어가려는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를 고려한 방청권 제공 방침도 세워놓았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업)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 선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이 선장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소환장을 발송했다. /연합뉴스

지리산 반달곰, 울무 걸려 숨져

지리산에 서식 중인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울무에 걸려 폐사했다. 이번이 폐사한 반달곰은 자신의 위치를 종복원기술원에 알려주는 위치추적발신기를 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종복원기술원에서 반달곰 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과 경남 하동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30분께 위치추적발신기를 달고 있던 반달가슴곰 한마리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마을 인근 야산에서 울무에 걸린 채 죽어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참사, 교통사고 간주 무개념 교수

○... 서울대의 A교수가 최근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간주한 이메일을 동료 교수에게 보내 논란.

○...1일 서울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우회중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등에게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글중 우 교수가 '교통사고에 불과한 일을 가지고 서울대 교수 명의의 성명서를 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나 소나 내는 성명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였다는 대목을 공개했다는 것.

○...우 교수는 누가 이러한 내용을 보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단순 교통사고로 바라보는 그의 시선과 더불어 개나 소가 된 전국의 다른 대학교수들..."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 /연합뉴스

"커피숍" 매매

- 봉선동 한일병원 근처
- 1층 20평(실평), 최신 인테리어
- 보 2천만원에 월 90만원
- 비/권리금 4500만원
- 월 매출 1200만원 정도
- 문의 - 010,3605,5000

오피스빌 "매매"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빌
- 13층, 53평(실33평), 창가 코너
- 전체 울수리, 양동~하천쪽
- 사무실 적합(주거 가능)
- 시세/분양가 - 2억원 정도
- 급매 - 1억 5500만원
- 문의 - 010,3605,5000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

남 / 직원 모집
경매 관심 있는 분 환영

남 : 초봉 200만원부터
여 : 초봉 150만원부터

사무, 임장 활동 및 기타